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관계향상을 위한 교수·학습 과정안 개발 및 적용:
중학교 1학년 ‘가족구성원간의 의사소통’ 단원을 중심으로*

Development of a Teaching and Learning Plan for a Communication Unit
for Family Members and Its Effect on Teenagers' Functional
Communications and Relational Satisfaction with Their Parents

삼호중학교
교사 주현정
한국교원대학교 가정교육과
교수 조병은

Samho Middle School
Teacher : Hyun Jung Joo
Departmen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Professor : Byung Eun Cho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연구 결과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is research explored the importance of conflict resolution in communication between adolescents and their parents. A teaching and learning plan on communication using the Active listening, I-message method and no-lose conflict resolution method was developed and applied to teaching the ‘Communication among Family Members’ unit in the middle school home economics and technology textbook. The experimental class of 203 students using the active listening, I message and no-lose conflict resolution method in communication was compared with a comparative class of 163 students using only the active listening and I message method, investigating the amounts of communication, conflicts, functional communication and degree of satisfaction the students perceived regarding relationships with their parents via pre and post tests. Both groups showed significant increases in their amounts of

Corresponding Author : Byung Eun Cho, Departmen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San 7 Darakri, Gangnaemyeon, Chongwongun, Chungbuk 363-791, Korea Tel: +82-43-230-3735 Fax:+82-43-231-4087
E-mail: euncho@knue.ac.kr

* 본 논문은 석사학위 청구논문의 일부임.

* 본 논문은 2010년도 한국교원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communication and functional communication. However, only the experimental class showed an increase in their degree of relationship satisfaction with their parents. Both groups evaluated the lesson positively.

주제어(Key Words) : 청소년 자녀와 부모의 의사소통(skills of teenagers communicating with parents), 적극적 경청, 나전달법을 이용한 비교집단수업(comparative class with the use of active listening and I-message skills), 적극적 경청, 나전달법, 갈등해결방법을 이용한 실험집단수업(experimental class using active listening, I-message, and no-lose conflict resolution method), 부모와의 기능적 의사소통과 관계만족도(functional communication and relational satisfaction with parents)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청소년기는 '심리적 격동기'라고 일컬을 만큼 심리적 변화가 급격히 일어나는 시기로, 발달단계상 자아정체감 형성을 위한 혼란을 경험하고 심리적 독립을 추구하면서 부모에게 도전적일 수 있다. 이로 인해 청소년은 부모와 다양한 갈등이 일어나고 심화될 수 있어 부모와 의사소통을 하는데 문제가 많을 가능성이 높다(공인숙, 이은주, 이주리, 2005; 이현지, 2005). 특히 부모는 상담자로서 청소년 자녀들에게 혼란과 갈등을 유발시키는 학업문제, 친구관계, 이성문제 등에 대처할 수 있는 정신적 자원이 되어주어야 하고(정현숙, 유계숙, 전혜정, 박주희, 2002), 청소년 자녀는 자신의 진로 탐색과 결정에도 부모와 많은 대화를 필요로 하므로,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더 중요하게 요구된다.

이러한 청소년과 부모간의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통한 관계향상은 중등교과 중에서도 가정교과에서 유일하게 다루어지고 있으며,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7학년에서,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8학년에서 계속하여 다루고 있다. 더욱이, 8학년의 '가족의 이해' 대단원에서는 효과적인 의사소통방법과 갈등해결능력을 길러 건강한 가족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역량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교육인적자원부, 2007). 따라서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에 대한 단원에서 부모자녀간 갈등해결방법을 통한 의사소통방법이 교과내용에 포함되어져야 하고 그에 대한 교수·학습 과정안 개발과 적용효과를 본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편,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에 대한 연구는 주로 발달심리분야와 가족생활교육분야에서 수행되어 왔다. 발달심리분야에서는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유형을 기능적,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으로 나누어 청소년 자녀의 심리·사회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과 부모자녀간의 갈등정도를 밝히는 연구들이 주로 행하여졌다(고경애, 2007; 고영희, 2007; 공인숙 외, 2005; 김성일, 2001; 박부진, 2008; 백승미, 2003; 백양희, 최외선, 1997; 이영미, 2005; 이요나, 2007; 이은자,

2005; 이현지, 2005). 이러한 연구들에 의하면 기능적인 의사소통은 부모자녀간의 상호 이해와 관계만족의 정도가 높고 갈등을 최소화하며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발달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나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은 청소년의 발달에 부정적인 역할을 하고, 부모자녀간 갈등을 심화시킨다는 것이다.

가족생활교육분야에서 부모와 청소년 자녀의 관계 향상을 위한 의사소통 프로그램은 주로 고든(Gordon, 1975)의 효율적인 부모역할 프로그램을 적용한 부모교육 프로그램(문성혜, 2002; 송정아, 윤명선, 1997; 유은희, 1996)이 대부분이다. 이 프로그램들은 부모를 대상으로 개발된 것이고, 자녀를 대상으로 개발된 프로그램은 유지연과 박정운(2005)의 연구가 있으나,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의 일부로서 의사소통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모든 프로그램에서 고든이 제시한 적극적 경청과 나전달법, 갈등해결방법이 포함되어 있으며,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의 습득을 통하여 부모자녀간의 갈등정도에 효과가 있었고, 관계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보고한다.

따라서 가정교과 수업에서 적용될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에 관한 교수·학습 과정안 개발은 갈등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교육하여야 하고, 이를 통해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이 보다 기능적으로 이루어져 관계를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기술·가정 교과가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을 다루는 유일한 교과이고 교육과정에서 갈등해결과 관계향상이 목적이란 것이 명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교수·학습 과정안 개발이나 효과를 본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모와의 갈등이 심화될 수 있는 청소년기에 의사소통을 통한 갈등해결의 중요성을 알아보고자,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으로 제시된 적극적 경청, 나전달법, 갈등해결방법 중 갈등상황에서 갈등해결방법을 사용하지 않은 의사소통과 갈등해결방법을 이용한 의사소통이 부모자녀관계에 미치는 효과를 비교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중학교 1학년 12종의 교과서 내의 '가족구성원간의

의사소통' 단원에서 적극적 경청과 나전달법만을 다룬 교과서와 갈등해결방법을 다룬 교과서의 분포를 파악한 후, 적극적 경청과 나전달법을 이용한 비교집단의 의사소통과 갈등해결방법을 이용한 실험집단의 의사소통에 관한 교수·학습 과정안을 개발하여 각각 적용하고자 한다. 그다음, 두 집단의 수업을 비교하여 부모자녀간의 대화정도, 갈등정도, 기능적 의사소통정도, 관계만족에서의 효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2. 연구내용

첫째, 중학교 1학년 기술·가정 '가족구성원간의 의사소통' 단원에서 비교집단용 적극적 경청과 나전달법을 이용한 의사소통의 교수·학습 과정안과 실험집단용 갈등해결방법을 이용한 의사소통의 교수·학습 과정안을 개발한다.

둘째, 수업 적용 후 부모와의 대화정도, 기능적 의사소통 정도와 부모자녀간의 갈등정도, 관계만족 측면에서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각각의 사전·사후 효과를 비교분석한다.

셋째, 수업 적용 후 부모와의 대화정도, 기능적 의사소통 정도와 부모자녀간의 갈등정도, 관계만족 측면에서 실험집단과 비교집단간 사후점수의 차이와 수업에 대한 평가의 차이를 비교분석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청소년자녀와 부모간 의사소통에 대한 선행연구

청소년기는 급격한 신체적인 변화와 자신의 위치와 역할, 앞으로의 가능성과 가치관 등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자아 정체감을 발달시켜 나가는 시기이다. 이러한 청소년기의 급격한 심리적 발달 과정에서 오는 부모자녀간의 갈등은 불가피한 것이고, 무조건 갈등을 회피하거나 억누르기 보다는 갈등의 발생을 줄이면서 나아가 갈등해결을 위한 의사소통 방법을 습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김순옥, 2007; 김현주 외, 2000; 문성혜, 2002; 정현숙 외, 2002). 청소년의 부모자녀관계에서 발생하는 구체적인 갈등영역을 보면, 숙제나 학교 성적, 형제·자매 관계, PC 게임, 방 청소, TV 보거나 음악 듣는 것과 같은 영역이었고(공인숙 외, 2005), 대부분 일상적인 가족생활 영역에서 빈번한 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부모와의 의사소통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부모자녀관계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고, 주로 의사소통 유형에 따른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과 부모자녀간의 갈등정도를 보기 위한 연구들이 대부분이다. 또한, 이들 연구는 주로 의사소통 방식에 따라 Barnes와 Olson(1982)이 분류한 기능적 의사소통과 역기능적 의사소통으로 유형

화하였다. 기능적인 의사소통은 자녀가 부모와의 상호작용에 있어 억압받지 않고 자유롭게 사실 또는 감정을 표현하는 긍정적인 의사소통 유형으로 의사소통을 통한 부모자녀간의 상호 이해와 관계만족의 정도가 높은 유형이다.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은 자녀가 부모와의 상호작용에서 의사교환을 주지 않고, 주제 선택에 조심하며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부정적인 의사소통 유형으로 부모자녀간의 신뢰도가 낮고 의사소통을 회피하여 관계만족의 정도가 낮은 유형이다. 부모와 청소년 자녀간의 일상적인 의사소통이 기능적일수록 청소년의 자아개념이 긍정적으로 나타났고(공인숙 외, 2005), 기능적 의사소통으로 관계 맺기는 명료하고 따뜻한 정서적 교류가 되어 청소년 개인의 자아 효능감에도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다(고경애, 2007). 또한, 청소년의 개체화에는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이 기능적일수록 부모와의 연결감이 높으며, 자아신뢰감이 높고(박부진, 2008), 자신에 대한 유능감이 높을 뿐 아니라(고영희, 2007; 이요나, 2007), 스트레스를 적게 인지하고(백양희, 1997), 자아정체감과도 정적 상관을 보였다(김성일, 2001). 청소년 자녀의 심리적 복지수준에서도 기능적 의사소통을 증가시키고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감소시키는 것이 청소년 자녀의 가정생활만족(최규련, 1998)과 우울성향 감소(고영희, 2007; 박현숙, 2005; 백양희, 1997; 이현지, 이은주, 2005)에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다.

청소년과 부모와의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은 청소년이 올바르게 못한 사회화 과정을 겪게 함으로써 다른 사회집단에 부적응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백승미, 2003), 가정생활적응과 학교적응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이은자, 2005). 또한, 부모와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청소년에게서 부모와 가정에 대한 불만이 증가하고 가출, 도벽, 비행 등의 행동문제가 발생함을 보여주었다(최규련, 1998).

부모자녀간의 갈등정도에 관한 연구를 보면, 기능적인 의사소통 유형은 서로의 가치관과 견해를 수용하고 이해하는 것이 용이해지므로 갈등이 적고(공인숙 외, 2005),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은 갈등을 일으킨다고 하였다(백승미, 2003). 또한, 청소년기에 부모와의 갈등이 높더라도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이 기능적인 가족의 청소년은 심리·사회적 적응에 긍정적인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영미, 2005).

한편, 가족생활교육분야에서는 고든의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을 적용하여 부모와 청소년 자녀의 관계 향상을 위해 개발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일부로 포함되었다(문성혜, 2002; 송정아, 윤명선, 1997; 유은희, 1996). 부모자녀관계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으로 Gordon(1975)은 적극적 경청(Active listening), 나전달법(I-message), 갈등해결방법(No-lose conflict resolution method)을 제시하고 있다. 효과적인 듣기 방법으로 적극적 경청을, 효과적인 말

하기 방법으로 나전달법을 말하였고, 부모와 자녀사이에 갈등이 있을 때 효과적인 방법은 갈등해결방법을 제시한다. 이러한 갈등해결방법은 부모자녀간의 문제에 대하여 부모 또는 자녀 어느 한 쪽이 이기는 방법을 피하고 부모자녀 양쪽이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제3의 방법을 찾는 것으로, 특히 부모와의 갈등이 심화될 수 있는 청소년기에는 잘 듣고, 잘 말하는 의사소통 방법도 중요하지만 갈등을 효과적으로 다루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습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들 프로그램은 주로 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을 함으로써 부모자녀관계의 질을 증진시키고자 한 연구이고, 자녀를 대상으로 개발된 프로그램은 유지연과 박정윤(2005)의 연구가 있으나 이 연구도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의 일부로써 의사소통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통한 청소년의 부모자녀관계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은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대부분이고 청소년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2. 가정교과에서의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내용

기술·가정 교과는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을 다루고 있는 유일한 교과이고, 교과의 의사소통 영역에서는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의 습득으로 갈등을 해결하여 가족간의 원만한 유대관계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술·가정 교과의 교육과정에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은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7학년의 '나와 가족의 이해' 대단원에 해당하였고,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8학년의 '가족의 이해' 대단원 안에 포함되어 있다. 제7차 교육과정 보다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의사소통 내용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가정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을 해결하는 능력과 이론 뿐 아니라 자신의 가족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실천의 내용이 추가되었다. 따라서 2007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의사소통 내용 영역 수업시 이에 대한 내용 확대와 함께 일상생활의 사례를 실습으로 다루어 실질적인 의사소통 방법을 지도하고, 자신의 가족생활에 적용할 기회를 제공하여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교수·학습 과정의 구성이 요구된다.

현재 제7차 교육과정이 적용된 중학교 1학년 기술·가정 교과서에서 부모자녀간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에 대한 내용은 1종을 제외한 11종의 교과서에서 효과적인 듣기 방법으로 적극적 경청을 제시하고, 효과적인 말하기 방법인 나전달법은 모든 교과서에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갈등해결방법을 제시한 교과서는 3종으로 나타났고 이들 중 2종은 갈등해결방법이 있다는 것만 언급하고, 단 1종에서만 갈등해결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적극적경청과 나전달법 외에 갈등해결방법을 적용한 의사소통방법이 다루어져야 하고 부모자녀관계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기술·가정 교과의 의사소통 영역에서 교수·학습 과정안 개발이나 효과를 본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기술·가정 교과의 '가족구성원간의 의사소통' 단원의 교수·학습 과정안을 개발하여 적용하고, 교과서에서 제시한 적극적 경청과 나전달법만을 이용한 집단과 적극적 경청과 나전달법 외에 갈등해결방법을 적용한 집단과의 비교를 통해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정도와 관계에 미친 효과를 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Ⅲ.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광주광역시 소재의 W중학교 1학년 9학급 남, 여학생 36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구성은 남녀학급에서 임의표집하여 실험집단은 남학생 3학급과 여학생 2학급 203명, 비교집단은 남학생 2학급과 여학생 2학급 163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2. 연구 대상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 총 366명 중 설문지 작성에서 부실하게 응답한 15명을 제외하고 실험집단(N_1)은 남학생 119명, 여학생 74명인 총 193명, 비교집단(N_2)은 남학생 79명, 여학생 79명인 총 158명으로 351명만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서는 두 집단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부모가 모두 있는 가정이 대부분이었고(N_1 :94.8%, N_2 :94.3%), 가정의 생활수준은 중간정도라고 생각하는 학생이 가장 많았으며(48.2%, 50.0%), 가정분위기는 대체로 화목하다고 응답하였다(44.6%, 48.7%). 아버지 연령은 41~45세가 가장 많았고(64.7%, 66.5%), 어머니 연령은 36~40세(51.0%, 58.4%)가 절반이상이었다. 부모의 학력은 모두 고졸이 가장 많았다. 복수응답으로 조사한 현재 같이 살고 있는 가족구성원은 아버지(29.8%, 28.1%), 어머니(30.2, 29.7%)가 가장 많고, 가족구성원 중 주로 대화하는 상대는 어머니(45.9%, 44.5%)가 가장 많았다.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부모자녀간 대화정도, 갈등정도, 기능적 의사소통정도, 관계만족 정도는 통계분석에 사용한 351명의 설문지 중 부모가 모두 없는 경우 4명을 제외하고 총 347명(N_1 :191명, N_2 :156명)의 응답만을 분석하였고, 부모와의 대화정도와 기능적 의사소통정도는 부모를 각각 조사하여 아버지와 의사소통은 333명(N_1 :184명, N_2 :149명),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은 346명(N_1 :190명, N_2 :156명)의 응답만을 분석하였다. 측정영역별로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에 사전

검사를 실시하여 집단간 점수의 차이를 비교분석한 결과 아버지와의 대화정도(6.93, 6.70), 어머니와의 대화정도(8.38, 8.31), 갈등정도(3.19, 3.13), 아버지와의 기능적 의사소통정도(4.54, 4.55), 어머니와의 기능적 의사소통정도(4.64, 4.67), 관계만족(5.26, 5.29)의 모든 측정영역에서 집단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동질적인 집단이라 할 수 있다.

3. 연구 설계

실험집단 5학급, 비교집단 4학급에서 각각 사전검사를 실시하고 집단간 사전검사 차이를 검증한 후, 비교집단은 적극적인 경청, 나전달법을 이용한 의사소통 수업을 하고, 실험집단은 적극적 경청과 나전달법 외에 갈등해결방법을 이용한 의사소통 수업을 진행하였다. 실험처치 후에는 사전검사와 동일한 내용으로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에서 각각 사후검사를 실시하였다. 수업의 효과를 집단별 사전·사후 차이 검증과 수업에 대한 평가를 집단간 차이 검증을 통해 비교분석하였다. 구체적인 실험 설계는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설계

G ₁	O ₁	X ₁	O ₂
G ₂	O ₃	X ₂	O ₄

G₁: 실험집단
 O₁: 실험집단의 사전검사
 O₂: 실험집단의 사후검사
 X₁: 갈등해결방법을 이용한 의사소통 수업
 X₂: 적극적 경청, 나전달법을 이용한 의사소통 수업
 G₂: 비교집단
 O₃: 비교집단의 사전검사
 O₄: 비교집단의 사후검사

4. 측정도구

청소년기 부모자녀관계에서의 의사소통 수업 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설문지를 개발하였다. 수업 전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사항과 수업 후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청소년의 부/모와의 대화정도, 기능적 의사소통정도, 부모자녀간 갈등정도, 관계만족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사전검사와 사후검사의 측정도구를 동일하게 구성하였다.

청소년의 부모자녀간 대화정도는 부/모와의 대화정도를 구분하여 '자주 대화한다(10점)' 부터 '전혀 대화하지 않는다(1점)' 까지 Likert식 10점척도로 하고, 신뢰도 계수는 .85였다. 부모자녀간 갈등정도는 Likert식 7점척도로 Papini와 Seby(1989)의 문제항목조사지(Issues Checklist: IC)를 기본으로 공인숙 외(2005)의 연구에서 재구성한 문항을 참고하여 총 13개의 갈등영역으로 재구성하고 기타 문항을 개방형으로 추가하여 다양한 갈등 영역을 파악하도록 하였고 신뢰도 계수는 .90이었다. 부모자녀간 기능적 의사소통정도는

Likert식 7점척도로 Barnes와 Olson의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척도(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Inventory)에서 청소년 자녀용 설문지(Adolescent Form)를 번안하여 사용한 민하영(1991)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부/모와의 의사소통으로 구분된 각각 20개의 문항으로 순기능적 의사소통 10문항과 역기능적 의사소통 10문항이다. 역기능적 의사소통 문항은 역점수 처리하였으며, 신뢰도 계수는 .94로 나타났다. 부모자녀관계 만족도 측정은 어은주와 유영주(1995)가 제작한 가족건강성 척도에서 이선정(2009)이 요인분석에 의해 '가족유대'에 관한 문항을 추출한 것을 참고하여 부모자녀관계의 유대감에 맞게 총 5문항으로 재구성하였고, 신뢰도 계수는 .95였다.

5. 연구절차

연구의 절차는 ADDIE 모형에 따라 진행하였다. 분석 단계에서는 '가족구성원간의 의사소통' 단원에서 필요한 학습내용을 정의하고 2009년 6월 15일 연구대상자 총 366명에게 사전검사를 실시하여 학습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하였다. 설계 단계에서는 교수·학습 과정안의 내용요소를 선정하고 총 3차시 교수·학습 과정안의 구체적인 학습목표를 설정하였다. 현재 적용되는 기술·가정 교육과정 단위 내용 분량과 연구대상 학교의 교과 진도계획에 맞추어 총 3차시로 설정하였고, 비교집단과 실험집단의 수업상황을 같게 하기 위해 동일한 3차시로 설계하였다. '가족구성원간의 의사소통' 단원이 계획된 1차시는 '의사소통의 개념', 2차시는 '잘 듣기'와 '효과적으로 말하기'로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내용을 동일하게 하고, 3차시에는 '갈등해결하기'로 가족간의 갈등상황에서 사용하는 갈등해결방법을 집단별로 다르게 하여 교수·학습 과정을 설계하였다. 개발 단계에서는 가족원간의 실제 대화상황을 중심으로 한 교수·학습 자료와 교사의 의사소통 방법 시범과 학습자의 대화 실습으로 구성된 '행복한 가족생활을 위한 의사소통' 교수·학습 과정안을 개발하였다. 실행 단계에서는 개발한 교수·학습 과정안을 연구대상 학교의 기술·가정 교과 진도에 맞추어 2009년 6월 15일부터 6월 26일까지 해당 단원의 수업시간에 적용하였다. 평가 단계에서는 수업 적용 후 사후검사를 통해 부모자녀관계에서의 효과와 수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하였다. 사후검사는 수업 적용이 끝난 직후 실시하지 않고, 총 3차시의 수업 동안 습득한 의사소통 방법을 가정에서 실천할 것을 강조하여 실제 가족관계에 적용하는 기간을 두고 수업 적용이 끝나고 약 3주 후인, 2009년 7월 15일에 실시하였다.

〈표 2〉 차시별 교수·학습 과정

차시	구분	행복한 가족생활을 위한 의사소통		
	주제	마음과 마음을 잇는 대화	내용요소	의사소통의 개념
1차시	학습 목표	1. 가족관계에서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의미와 중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 2. 의사소통의 구성 요소와 방해 요소를 말할 수 있다.		
	도입	· 대화와 가족관계: 대화로 인해 가족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 발표하기	[동영상자료]영화 '다크나이트' 중 대화상황	
	전개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의미와 중요성 · 가족원간의 의사소통이 더 중요한 이유, 가정에서 주로 누구와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대화를 나누고 싶은 가족원과 대화를 하기 싫은 가족원의 대화내용을 적어보고 그 이유를 발표하기 · 긍정적인 의사소통과 부정적인 의사소통 비교 ○의사소통의 구성요소: 언어적, 비언어적 방법 그림, 표와 함께 시범 보이기, 내가 즐겨 사용하는 방법을 적어보고 의사전달이 잘 되는지 짝과 함께 실습해보기 ○의사소통의 방해요소: 의사소통 걸림돌 자가 진단,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걸림돌 12가지	[사진자료]드라마「그저 바라보다가」중 대화 상황, [그림자료]가족의 하루 대화 [통계자료]가족간의 가장 많이 하는 말[학습 활동지]가족의 마음과 마음을 잇기 [동영상자료]「그것이 알고 싶다」'가족대화, 기술이 필요하다' [그림자료]언어적 방법, 비언어적 방법[통계 자료]의사소통 방법의 중요성 [동영상자료] '대화' 공익광고 [학습활동지]의사소통 전달매체 [체크리스트]의사소통 걸림돌	
	정리	· 의사소통의 의미와 중요성, 의사소통의 구성요소와 방해요소 내용 정리 · 말 관련속담 조사하기, 가족대화 신문기사 읽어보기	[형성평가] [학습활동지]말의 중요성을 담은 속담을 알아봅시다!, 가족대화 하루 평균30분미만	
	주제	마음 이해하고 표현하기	내용요소	잘 듣기, 효과적으로 말하기
	학습 목표	1. 적극적 경청과 나전달법의 의미와 중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 2. 적극적 경청과 나전달법을 이용하여 대화할 수 있다.		
2차시	도입	· 말하기와 듣기: 잘못된 의사소통의 문제점 찾기	[동영상자료]드라마「연인」8회 중 대화상황	
	전개	○적극적 경청 · 적극적 경청의 의미와 중요성, 경청의 단계와 경청의 자세: 단계별 시범보이기, 나의 듣기 방법 점검, 경청의 자세로 들을 때와 아닐 때의 느낌 비교해보기, 적극적 경청 하는 방법: 적극적 경청 시범, 연습해보기 ○나전달법 · 나전달법의 의미와 중요성, 나전달법과 너전달법의 비교: 가족대화 상황에서 너전달법을 나전달법으로 바꿔 보기, 나전달법의 3요소: 나전달법의 3요소 사례제시 후 시범, 나전달법의 3요소 적용, 연습	[체크리스트]대화할 때 나의 듣기자세는 어느 단계에 해당할까? [그림자료]경청의 자세, '두 눈과 두 귀' [플레이스자료]가족의 대화 상황 [학습활동지]적극적 경청 [동영상자료]드라마「그저 바라보다가」중 '나전달법' 과 '너전달법'의 대화비교 [그림자료]부모자녀대화 [학습활동지]너전달법을 나전달법으로 [학습활동지]나전달법 3요소	
	정리	· 적극적 경청의 의미, 중요성, 방법, 나전달법의 의미, 중요성, 방법 내용 정리 · 가정에서 실천하기	[ppt] [형성평가]	
	주제	마음과 마음이 부딪칠 때	내용요소	갈등해결하기
	학습 목표	1. 갈등해결의 의미와 중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 2. (실험)가족원간의 갈등상황에서 갈등해결방법을 이용하여 대화할 수 있다. 2. (비교)가족원간의 갈등상황에서 적극적 경청과 나전달법을 이용하여 대화할 수 있다.		
	도입	○부모와의 갈등 상황: 최근 부모와의 갈등 경험과 자신의 갈등해결 방법 발표해보기	[동영상자료] '미래를 함께 대화하자' 공익 광고	
3차시	전개	○가족 갈등의 의미와 의사소통을 통한 갈등해결의 중요성: 부모와의 관계에서 겪고 있는 갈등 목록화, 갈등대처방식 분석으로 나의 갈등 해결방법을 진단해보기 ○갈등해결방법 (실험)문제의 소유자 파악하기, 제1의 방법, 제2의 방법, 제3의 방법을 비교하고 각각의 방법에 따라 대화해보기, 갈등해결방법의 단계 연습 (비교)문제의 소유자 파악하고 갈등상황에 따라 의사소통 방법 선택하여 적용하기 ○가족과의 갈등상황에서 의사소통방법 (실험)부모님과과의 다양한 갈등상황에서 갈등해결방법의 단계에 따라 대화해보기 (비교)부모님과과의 다양한 갈등상황에서 적극적 경청과 나전달법으로 대화해보기	[학습활동지]나와 부모님과의 갈등 [체크리스트]갈등대처방식 [차트자료]네모꼴 수용도식 [학습활동지]가족과의 갈등상황에서 문제의 소유자는 누구일까요? [학습활동지](실험)갈등을 해결하는 3가지 방법, 갈등해결방법의 6단계 [학습활동지](비교)갈등해결을 위한 대화 [그림자료]부모자녀 갈등상황의 대화 [학습활동지](실험)갈등해결방법의 6단계로 대화하기 [학습활동지](비교)가족과의 갈등상황에서 적극적 경청과 나전달법으로 대화해보자,	
	정리	· 갈등해결방법의 의미와 중요성, 가족과의 갈등상황에서 의사소통방법 내용정리 · 가정에서 실천하기 · 사후검사 안내	[ppt] [형성평가]	

IV. 연구 결과

1. '가족구성원간의 의사소통' 단원 교수·학습 과정안 개발

'가족구성원간의 의사소통' 단원의 교수·학습 과정안은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나와 가족관계' 단원이 중학교 1학년에 해당하지만,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가족관계' 단원으로 중학교 2학년에 해당되는 영역이다. 중학교 1학년은 2010년부터 2007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므로 2009년 현재 교수·학습 과정안 개발 후 현장 적용을 위해 단원 구성과 교과서 내용은 제7차 교육과정을 적용하고, 제7차 교육과정에서 없었던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 중 '갈등해결방법' 내용을 추가하여 개발하였다.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가족관계' 단원 목표인 '가족관계에서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가정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을 원활하게 해결하여 가족으로서 건강한 유대관계를 형성한다.'에 근거하여 '행복한 가족생활을 위한 의사소통'이라는 주제로 총 3차시의 교수·학습 과정안을 개발하였다.

'행복한 가족생활을 위한 의사소통' 교수·학습 과정안은 '마음과 마음을 잇는 대화', '마음 이해하고 표현하기', '마음과 마음이 부딪칠 때'의 하위 주제로 3차시를 구성하였다. 1차시는 '마음과 마음을 잇는 대화'로 의사소통의 개념 내용 요소에 해당하며 2차시는 '마음 이해하고 표현하기'라는 주제로 가족원간의 의사소통 방법 중 잘 듣기, 효과적으로 말하기의 내용요소에 해당한다. 1, 2차시는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이 동일하게 학습목표와 학습내용으로 구성하고, 3차시는

'마음과 마음이 부딪칠 때'로 갈등해결하기에 해당하며 가족과의 갈등상황에서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의사소통 방법 내용구성에 차이를 두고 교수·학습 과정안을 구성하였다. 교수·학습 과정은 한 차시가 45분으로 되어 있으며, 청소년이 행복한 가족생활을 하는데 필수적인 의사소통의 의미와 중요성을 파악하고, 부모와의 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일상사례를 통해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을 습득하고 이를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구체적인 차시별 교수·학습 과정과 교수·학습 자료는 <표 2>와 같다.

2. 교수·학습 과정안 수업 적용 결과

1)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사전·사후 수업 효과 분석

(1) 부모자녀간 대화정도 사전·사후 효과 분석

수업 후 일상생활에서 부모와 어느 정도 대화하는지를 알아본 결과, <표 3>과 같이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모두 수업 전보다 부모와 더 자주 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집단의

<표 3> 부모자녀간 대화정도에 대한 사전·사후점수 비교

구분	N	사전검사		사후검사		paired-t	
		M	SD	M	SD		
부	N ₁	184	6.93	2.09	7.93	2.14	-6.50***
	N ₂	149	6.70	2.32	7.23	2.31	-3.37***
모	N ₁	190	8.38	1.66	8.83	1.67	-3.94***
	N ₂	156	8.31	1.77	8.60	1.53	-2.48**

p < .01 *p < .001

<표 4> 부모자녀간 갈등정도에 대한 사전·사후점수 비교

구분	실험집단(N ₁ = 191)					비교집단(N ₂ = 156)					
	사전검사		사후검사		paired-t	사전검사		사후검사		paired-t	
	M	SD	M	SD		M	SD	M	SD		
갈등영역	숙제·학교성적	3.97	1.45	3.90	1.73	.51	4.12	1.49	4.3	1.50	-1.48
	진로·진학 문제	3.47	1.53	3.37	1.65	.68	3.30	1.62	3.27	1.55	.22
	친구 관계	3.16	1.53	2.95	1.54	1.68	3.01	1.41	3.19	1.55	-1.38
	이성 교제	2.41	1.58	2.25	1.52	1.42	2.49	1.62	2.45	1.59	.29
	TV시청·음악 청취	3.60	1.53	3.17	1.59	3.09**	3.53	1.62	3.28	1.69	1.56
	컴퓨터 이용	3.87	1.65	3.51	1.78	2.47**	3.87	1.76	3.63	1.69	1.64
	핸드폰 사용	3.24	1.75	3.01	1.69	1.62	3.01	1.93	2.87	1.72	.97
	귀가시간	3.22	1.70	2.90	1.70	2.14**	3.10	1.68	2.85	1.68	1.67
	집안일 조력, 참여	3.05	1.58	2.70	1.54	2.79**	2.90	1.45	3.01	1.45	-.81
	주말 시간 사용	3.45	1.66	2.96	1.62	3.23**	3.42	1.71	3.26	1.66	1.03
	용돈 사용	3.27	1.84	2.92	1.66	2.43**	3.25	1.75	3.24	1.82	.89
	옷차림·머리 모양	3.07	1.69	2.74	1.67	2.69**	3.09	1.80	3.10	1.69	-.05
	흡연·음주	1.69	1.65	1.65	1.52	.29	1.60	1.50	1.42	1.14	1.44
	계	3.19	1.01	2.93	1.10	3.13**	3.13	.97	3.06	.95	.82

**p < .01

아버지-자녀간 대화정도는 6.93에서 7.93으로, 어머니-자녀간 대화정도는 평균 8.38에서 8.83으로 증가하였고, 비교 집단에서 아버지와 자녀간의 대화정도는 수업 전 6.70에서

수업 후 7.23로, 어머니와 자녀간의 대화정도는 수업 전 8.31에서 수업 후 8.60로 증가하여 두 집단 모두 부모와의 대화정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아버

〈표 5〉 아버지-자녀간 기능적 의사소통정도에 대한 사전·사후점수 비교

분항	실험집단(N ₁ = 184)					비교집단(N ₂ = 149)				
	사전검사		사후검사		paired-t	사전검사		사후검사		paired-t
	M	SD	M	SD		M	SD	M	SD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않고 아버지께 나의 생각을 말하는 편이다.	4.44	1.77	4.97	1.82	-3.92***	4.35	1.82	4.79	1.77	-3.26***
#때때로 아버지의 말씀이 믿기지 않을 때가 있다.	4.58	1.70	5.23	1.69	-4.18***	4.77	1.63	5.00	1.57	-1.37
아버지는 나의 이야기를 잘 들어 주시는 편이다.	5.22	1.54	5.59	1.53	-2.91**	5.11	1.74	5.35	1.53	-1.73
#내가 원하는 것을 아버지께 말씀드리기가 때때로 조심스럽다.	3.88	1.70	4.33	1.92	-2.78**	3.85	1.57	4.26	1.84	-2.23*
#우리아버지는 내가 뻔히 알고 있는 것도 굳이 이야기해서 내 기분을 상하게 하시는 편이다.	4.67	1.79	5.00	1.85	-2.06*	4.83	1.79	4.95	1.82	-.77
아버지께서는 내가 어떤 기분 상태인지 잘 짐작하신다.	4.63	1.59	5.33	1.61	-5.22***	4.43	1.72	4.69	1.61	-1.65
나는 아버지와 이야기 하는 것이 즐겁다.	4.93	1.65	5.32	1.59	-3.01**	4.86	1.73	5.04	1.66	-1.39
나에게 고민거리가 생긴다면 어려워하지 않고 아버지와 의논할 수 있다.	4.27	1.77	4.89	1.85	-4.33***	4.09	1.95	4.61	1.80	-3.50***
나는 아버지께 아버지께 대한 나의 감정을 솔직히 말씀드릴 수 있다.	4.29	1.73	4.92	1.86	-4.19***	4.26	1.85	4.64	1.74	-2.58**
#아버지와 내가 문제가 생기면 나는 말을 하지 않는 편이다.	4.30	1.73	4.85	1.80	-3.39**	4.40	1.72	4.64	1.76	-1.38
#나는 아버지와 이야기 하는 것이 망설여진다.	5.01	1.75	5.37	1.70	-2.32*	5.16	1.65	5.47	1.40	-2.23*
#나는 아버지께 말대꾸를 하는 편이다.	4.54	1.63	4.89	1.70	-2.37*	4.42	1.72	4.75	1.68	-2.46*
내가 무엇을 물어보면 아버지는 솔직하게 대답해 주시는 편이다.	5.01	1.58	5.44	1.52	-3.08**	4.86	1.64	5.08	1.54	-1.56
아버지는 나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시는 편이다.	5.09	1.60	5.60	1.51	-3.91***	5.11	1.65	5.06	1.58	.38
#아버지께 나의 고민을 의논드리지만 의논드리고 싶지 않을 때도 많다.	3.95	1.55	4.39	1.84	-2.44*	3.85	1.46	4.22	1.84	-2.33*
고민이나 걱정거리가 있을 때 어려워하지 않고 아버지께 말씀드릴 수 있다.	4.30	1.71	4.96	1.76	-4.73***	4.46	1.74	4.60	1.77	-1.04
나의 속마음을 아버지께 터놓고 말씀드릴 수 있다.	4.26	1.81	4.98	1.80	-5.30***	4.44	1.81	4.57	1.77	-.83
#아버지께서는 나에게 잔소리를 많이 하시는 편이다.	4.21	1.66	4.60	1.79	-2.35*	4.29	1.67	4.26	1.82	.17
#아버지는 나에게 화를 내실 때면 모욕감을 주면서 꾸중하신다.	4.85	1.72	5.34	1.82	-3.01**	4.83	1.76	4.94	1.77	-.71
#어떤 사실에 대해 나의 솔직한 감정을 아버지께 이야기하기 어렵다.	4.34	1.37	4.75	1.87	-2.50*	4.66	1.62	4.75	1.70	-.53
계	4.54	.94	5.04	1.20	-5.45***	4.55	.97	4.78	1.14	-2.88**

*p < .05 **p < .01 ***p < .001 (# 역점수 처리 문항)

지-자녀간 대화정도가 크게 증가하였다. 청소년 자녀는 수업 전후 모두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와 더 자주 대화하고 있으나 수업의 효과는 아버지와의 대화정도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2) 부모자녀간 갈등정도에 대한 사전·사후 효과 분석

실험집단에서 수업 후 청소년 자녀가 부모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갈등정도가 <표 4>과 같이 3.19에서 2.93으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 갈등해결방법을 통한 의사소통 수업이 갈등정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되었음을 보여준다. 갈등영역별로 갈등정도를 보면 13개 영역 중 TV시청·음악청취, 컴퓨터 이용, 귀가시간, 집안일 조력·참여, 주말 시간 사용, 용돈사용, 옷차림·머리모양 등 7개의 영역에서 갈등정도가 유의하게 낮아졌다. 비교집단의 청소년 자녀가 지각한 부모와의 갈등정도는 3.13에서 3.06로 약간 낮아지기는 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고, 갈등영역별 갈등정도에서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갈등영역별 갈등정도가 심한 순서는 수업 전과 약간의 변동은 있지만 두 집단 모두 가장 갈등이 높은 영역은 숙제·학교성적, 컴퓨터 이용이고 갈등이 낮은 영역은 이성교제와 흡연·음주 영역으로 수업 전과 동일하게 나타났다.

(3) 부모자녀간 기능적 의사소통정도에 대한 사전·사후 효과 분석

가) 아버지-자녀간 기능적 의사소통정도

실험집단의 청소년이 아버지와의 대화에서 기능적으로 의사소통하는 정도는 <표 5>과 같이 4.54에서 5.04로 증가하여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갈등해결방법을 이용한 의사소통 수업에서 아버지와 청소년 자녀간에 긍정적이고 개방적인 의사소통 유형인 기능적인 의사소통정도의 향상에 도움이 되었음을 보여준다.

아버지와 자녀간의 기능적 의사소통정도를 측정하는 모든 문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나의 속마음을 아버지께 터놓고 말씀드릴 수 있다', '고민이나 걱정거리가 있을 때 어려워하지 않고 아버지께 말씀드릴 수 있다', '나에게 고민거리가 생긴다면 어려워하지 않고 아버지와 의논할 수 있다', '나는 아버지께 아버지에 대한 나의 감정을 솔직히 말씀드릴 수 있다',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않고 아버지께 나의 생각을 말하는 편이다' 등의 말하기 관련 문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대방의 행동이 자신에게 어떤 생각이나 느낌을 갖게 하는지를 상대방에게 진실하게 표현하는 나전달법을 통한 효과적인 말하기와 문제 해결의 대화와 의사소통 능력이 향상되어 아버지와 자녀간의 기능적인 의사소통정도가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아버지께서는 내가 어떤 기분 상태인지 잘 짐작하신다', '아버지께서는 내가 어떤 기분 상태인지 잘 짐

작하신다' 등의 아버지의 대화 태도와 관련된 문항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청소년자녀가 아버지와의 대화에서 서로의 솔직한 감정 전달을 유도하며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여 기능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져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비교집단에서 적극적 경청과 나전달법만을 이용한 의사소통 수업 적용 결과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이 보다 기능적으로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자녀와 아버지간의 기능적 의사소통정도는 4.55에서 4.78로 증가하여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20개의 하위 문항 중 6문항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나에게 고민거리가 생긴다면 어려워하지 않고 아버지와 의논할 수 있다',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않고 아버지께 나의 생각을 말하는 편이다', '나는 아버지께 아버지에 대한 나의 감정을 솔직히 말씀드릴 수 있다'의 문항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 자녀가 아버지와의 대화에서 자신의 감정이나 의견을 전달하는 어려움을 나전달법의 말하기 연습을 통해 기능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져 수업의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어머니-자녀간 기능적 의사소통정도

실험집단에서 어머니와 자녀간의 기능적 의사소통정도는 4.64에서 5.09로 증가하여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표 6>). 이는 청소년이 갈등해결방법을 이용한 수업 후 어머니와의 기능적으로 의사소통을 하여 수업의 효과를 보여주는 결과이다. 어머니와 자녀간의 기능적 의사소통정도를 나타내는 모든 하위 문항의 평균점수가 증가하였고, 세 문항을 제외한 모든 문항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나의 속마음을 어머니께 터놓고 말씀드릴 수 있다', '고민이나 걱정거리가 있을 때 어려워하지 않고 어머니께 말씀드릴 수 있다', '어머니와 내가 문제가 생기면 나는 말을 하지 않는 편이다(##)'의 문항에서 점수가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문제가 있을 때 대화를 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이 증가한 것으로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이 보다 기능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나타낸다. 또한 '어머니께서는 내가 어떤 기분 상태인지 잘 짐작하신다', '어머니는 나의 이야기를 잘 들어 주시는 편이다', '내가 무엇을 물어보면 어머니는 솔직하게 대답해 주시는 편이다'와 같은 어머니의 대화 태도와 관련된 문항에서 수업 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갈등해결방법을 이용한 의사소통 수업 후 청소년이 어머니와의 대화에서 상대방의 말을 적극적으로 들어주고 자신의 감정을 나전달법으로 전달하며 갈등이 생겼을 때 회피하지 않고 문제해결을 하는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의 사용으로 상호반향적인 의사소통 과정이 이루어져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표 6〉 어머니-자녀간 기능적 의사소통정도에 대한 사전·사후점수 비교

분항	실험집단(N ₁ = 190)					비교집단(N ₂ = 156)				
	사전검사		사후검사		paired-t	사전검사		사후검사		paired-t
	M	SD	M	SD		M	SD	M	SD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않고 어머니께 나의 생각을 말하는 편이다.	4.99	1.61	5.45	1.66	-3.50**	5.21	1.72	5.46	1.53	-1.77
#때때로 어머니의 말씀이 믿기지 않을 때가 있다.	4.63	1.61	5.24	1.65	-3.97***	4.77	1.53	4.99	1.62	-1.34
어머니는 나의 이야기를 잘 들어 주시는 편이다.	5.38	1.53	5.86	1.29	-3.98***	5.62	1.48	5.62	1.37	.00
#내가 원하는 것을 어머니께 말씀드리기가 때때로 조심스럽다.	3.98	1.61	4.44	1.85	-2.78**	3.88	1.37	4.28	1.87	-2.32*
#어머니는 내가 뻔히 알고 있는 것도 굳이 이야기해서 내 기분을 상하게 하시는 편이다.	4.70	1.74	4.87	1.93	-1.09	4.68	1.58	4.77	1.90	-.56
#어머니께서는 내가 어떤 기분 상태인지 잘 짐작하신다.	4.83	1.54	5.37	1.64	-4.20***	4.72	1.58	4.92	1.58	-1.34
나는 어머니와 이야기 하는 것이 즐겁다.	5.09	1.59	5.46	1.57	-2.89**	5.26	1.61	5.34	1.52	-.61
나에게 고민거리가 생긴다면 어려워하지 않고 어머니와 의논할 수 있다.	4.56	1.81	5.03	1.84	-3.20**	4.58	1.91	4.96	1.71	-2.53**
나는 어머니께 어머니에 대한 나의 감정을 솔직히 말씀드릴 수 있다.	4.57	1.70	5.00	1.85	-3.02**	4.66	1.80	4.98	1.70	-2.14*
#어머니와 내가 문제가 생기면 나는 말을 하지 않는 편이다.	4.27	1.69	4.92	1.75	-4.01***	4.40	1.61	4.55	1.86	-.83
#나는 어머니와 이야기 하는 것이 망설여진다.	5.22	1.63	5.48	1.67	-1.66	5.29	1.91	5.35	1.56	-.43
#나는 어머니께 말대꾸를 하는 편이다.	4.23	1.50	4.54	1.81	-2.30*	4.12	1.80	4.55	1.74	-2.88**
내가 무엇을 물어보면 어머니는 솔직하게 대답해 주시는 편이다.	5.03	1.54	5.54	1.46	-3.84***	4.91	1.53	5.16	1.50	-1.91
어머니는 나를 이해하려고 노력 하시는 편이다.	5.22	1.53	5.66	1.46	-3.48**	5.29	1.49	5.21	1.63	.57
#어머니께 나의 고민을 의논드리지만 의논드리고 싶지 않을 때도 많다.	3.95	1.53	4.54	1.87	-3.33**	3.89	1.53	4.17	1.81	-1.77
고민이나 걱정거리가 있을 때 어려워하지 않고 어머니께 말씀드릴 수 있다.	4.45	1.71	5.07	1.75	-4.50***	4.73	1.65	4.83	1.71	-.71
나의 속마음을 어머니께 티놓고 말씀드릴 수 있다.	4.51	1.72	5.17	1.78	-4.90***	4.79	1.66	4.87	1.73	-.49
#어머니께서는 나에게 잔소리를 많이 하시는 편이다.	3.74	1.63	4.07	1.93	-2.10*	3.53	1.49	3.85	1.82	-2.06*
#어머니는 나에게 화를 내실 때면 모욕감을 주면서 꾸중하신다.	4.80	1.70	5.17	1.92	-2.22*	4.50	1.65	4.82	1.80	-1.94
#어떤 사실에 대해 나의 솔직한 감정을 어머니께 이야기하기 어렵다.	4.60	1.54	4.84	1.85	-1.50	4.65	1.66	4.66	1.76	-.07
계	4.64	.91	5.09	1.21	-4.95***	4.67	.93	4.87	1.09	-2.51**

*p < .05 **p < .01 ***p < .001 (# 역점수 처리 문항)

비교집단의 어머니-자녀간 기능적 의사소통정도는 4.67에서 4.87로 증가하여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기능적인 의사소통정도를 나타내는 20분항 중 5분항에서 수업전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수업 후 유의한 차이가 크게 나타난 문항은 '나는 어머니께 말대꾸를 하는 편이다(#)'와 '나에게 고민거리

가 생긴다면 어려워하지 않고 어머니와 의논할 수 있다'이다. 적극적 경청과 나전달법을 통한 의사소통 수업 후 어머니와의 대화에서 자신이 원하는 바나 고민거리, 어머니에 대한 감정을 나의 입장에서 진실되게 표현하고 어머니와의 대화가 보다 기능적으로 개선되어 수업의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7〉 부모자녀간 관계만족에 대한 사전·사후점수 비교

문항	실험집단(N ₁ = 191)					비교집단(N ₂ = 156)				
	사전검사		사후검사		paired-t	사전검사		사후검사		paired-t
	M	SD	M	SD		M	SD	M	SD	
나는 부모님과 가깝다고 느낀다.	5.37	1.40	5.76	1.41	-3.76***	5.35	1.51	5.48	1.51	-1.20
나는 부모님과의 관계에 대해 만족한다.	5.30	1.50	5.69	1.49	-3.64***	5.30	1.65	5.44	1.49	-1.22
부모님은 나를 존중해준다.	5.24	1.47	5.63	1.50	-3.52**	5.17	1.44	5.24	1.50	-.70
부모님은 나에게 충분한 관심을 보인다.	5.34	1.47	5.70	1.40	-3.25**	5.49	1.48	5.53	1.47	-.34
부모님과 나는 서로를 진실하게 대한다.	5.09	1.48	5.44	1.55	-3.19**	5.15	1.55	5.23	1.44	-.70
계	5.26	1.33	5.64	1.36	-3.95***	5.29	1.36	5.38	1.33	-1.10

p < .01 *p < .001

(4) 부모자녀간 관계만족도에 대한 사전·사후 효과 분석

실험집단에서 수업 후 청소년 자녀가 부모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만족정도를 측정한 결과 〈표 7〉과 같이 전체적인 부모와 청소년 자녀간의 관계만족 정도는 5.26에서 5.64로 증가하였고, 모든 하위 문항에서 증가하여 갈등해결방법을 이용한 의사소통 수업이 부모자녀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음을 보여준다. 특히 '나는 부모님과 가깝다고 느낀다', '나는 부모님과의 관계에 만족한다'의 문항에서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업 후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져 관계에 대한 만족감이 증가하였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비교집단에서 청소년이 부모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만족정도는 5.29에서 5.38로 약간 상승하고 평균 이상의 부모자녀간 관계만족정도를 보이나, 수업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2)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대화정도, 갈등정도, 기능적 의사소통정도, 관계만족도에 대한 사후검사 차이

'행복한 가족생활을 위한 의사소통' 수업은 부모자녀간의 갈등상황에서 실험집단에는 갈등해결방법을 이용한 의사소통을, 비교집단에는 적극적 경청과 나전달법을 이용한 의사소통을 하도록 차이를 두어 실험수업을 진행하였다. 사전검사로 집단간 동질성이 확보된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에 수업 후 부모자녀간의 대화정도, 갈등정도, 기능적 의사소통정도, 관계만족정도를 알아보고 집단간 사후점수의 차이를 분석하여 수업의 효과를 비교하였다.

(1) 부모자녀간 대화정도 사후검사 차이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에서 수업 후 청소년 자녀와 부모와의 대화정도를 알아본 결과 아버지, 어머니와의 대화에서 모두 비교집단보다 실험집단이 더 자주 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버지와의 대화정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비교집단의 적극적 경청과 나전달법을 이용한 의사소통 수업에 비해 실험집단의 갈등해결방법을 이용한 의사소통 수업이 부모자녀가 함께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의견을 조정하며 대화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대화정도를 증가시키는데 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부모자녀간 갈등정도 사후검사 차이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수업 후 부모자녀간의 전체 갈등정도는 집단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갈등영역별 갈등정도를 보면 사전사후검사에서 청소년이 부모와 가장 갈등을 많이 느끼는 영역으로 나타난 숙제·학교성적에서만 두 집단간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차이는 갈등해결방법을 이용한 실험집단이 적극적 경청과 나전달법을 이용한 비교집단에 비해 청소년 자녀와 부모 사이에서 가장 갈등이 심한 영역의 갈등정도를 낮추는데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3) 부모자녀간 기능적 의사소통정도 사후검사 차이

가) 아버지-자녀간 기능적 의사소통정도 사후검사 차이
 수업 후 청소년이 아버지와 기능적으로 의사소통하는 정도를 알아본 결과 실험집단이 비교집단보다 아버지와 더 기능적인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능적 의사소통정도의 하위문항에서는 '아버지께서는 내가 어떤 기분 상태인지 잘 짐작하신다', '내가 무엇을 물어보면 아버지는 솔직하게 대답해 주시는 편이다', '아버지께서는 나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시는 편이다'의 아버지의 대화태도와 관련된 문항과 '나의 속마음을 아버지께 터놓고 말씀드릴 수 있다'의 나의 대화 태도와 관련된 문항에서 집단간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차이는 아버지와와의 대화상황에서 적극적 경청과 나전달법 외에 갈등해결방법을 이용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솔직하게 자신의 욕구와 감정을 표현하도록 하여 기능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더 도움이 됨을 보여준다.

〈표 8〉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사후검사 차이

	구분	실험집단		비교집단		t	
		M	SD	M	SD		
대화정도	부	7.93	2.14	7.23	2.31	-2.88**	
	모	8.83	1.67	8.60	1.53	-1.32	
갈등정도	숙제·학교성적	3.90	1.73	4.3	1.50	2.27*	
기능적 의사소통정도	부	아버지는 내가 어떤 기분 상태인지 잘 짐작하신다.	5.33	1.61	4.69	1.61	-3.60***
		내가 무엇을 물어보면 아버지는 솔직하게 대답해 주시는 편이다.	5.44	1.52	5.08	1.54	-2.13*
		아버지는 나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시는 편이다.	5.60	1.51	5.06	1.58	-3.16**
	모	나의 속마음을 아버지께 터놓고 말씀드릴 수 있다.	4.98	1.80	4.57	1.77	-2.07*
		어머니는 내가 어떤 기분 상태인지 잘 짐작하신다.	5.37	1.64	4.92	1.58	-2.58**
		내가 무엇을 물어보면 어머니는 솔직하게 대답해 주시는 편이다.	5.54	1.46	5.16	1.50	-2.35*
	어머니는 나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시는 편이다.	5.66	1.46	5.21	1.63	-2.68**	
관계만족	부모님은 나를 존중해준다.	5.63	1.50	5.24	1.50	-2.37*	

* $p < .05$ ** $p < .01$ *** $p < .001$

나) 어머니와의 기능적 의사소통정도 사후검사 차이

어머니-자녀간 기능적 의사소통정도에 대한 사후검사 결과 실험집단이 비교집단보다 어머니와 기능적인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 경향이나 집단간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어머니께서는 나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시는 편이다’, ‘어머니께서는 내가 어떤 기분 상태인지 잘 짐작하신다’, ‘내가 무엇을 물어보면 어머니는 솔직하게 대답해 주시는 편이다’의 3문항에서 집단간에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모두 어머니의 대화 태도와 관련된 것으로 갈등상황에서 어머니의 대화 태도가 변화하였다고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의사소통은 상호간에 영향을 주고받는 대화과정으로써 갈등해결방법을 이용한 실험집단이 적극적 경청과 나전달법을 이용한 비교집단에 비해 갈등상황에서 어머니-자녀간 의사소통이 서로의 욕구와 감정을 얘기하고 문제해결적으로 풀어나감으로써 청소년이 느끼는 어머니의 대화 태도 변화와 기능적 의사소통정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4) 부모자녀간 관계만족도 사후검사 차이

부모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만족정도는 실험집단이 비교집단보다 만족하고 있는 경향이나, 전체적인 관계만족 정도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부모님은 나를 존중해준다’ 문항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여 갈등해결방법을 이용한 실험집단이 적극적 경청과 나전달법을 이용한 비교집단과 비교하여 서로의 갈등을 확인하고 해결방법을 모색하는 대화과정이 있어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여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3) 수업에 대한 평가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에서 ‘행복한 가족생활을 위한 의사

소통’ 수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조사한 결과는 〈표 9〉과 같으며 실험집단에서는 5.12, 비교집단에서는 5.18로 나타나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나 두 집단에서 모두 학생들의 평가가 매우 긍정적이었다. 실험집단의 경우 수업에 대해 만족한다는 문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 갈등해결방법을 이용한 수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다고 볼 수 있었다. 비교집단에서는 교수도구의 사용이 적절하였다는 문항이 가장 높게 나타나 컴퓨터를 활용하여 직접 실제 대화상황을 보고 의사소통 방법을 사용한 교수·학습 자료에서 만족도가 높음을 보여주었다. 두 집단 모두 가장 낮게 평가한 항목은 수업시간의 적절성으로 수업시간과 발표시간, 질문할 시간을 더 늘렸으면 좋겠다고 평가하였다.

〈표 9〉 수업에 대한 평가

(N = 351)

문항내용	실험집단	비교집단	t
	(N ₁ = 193)	(N ₂ = 158)	
	M(SD)	M(SD)	
학습방법이 재미있었다.	5.06(1.29)	5.12(1.35)	.40
학습주제를 이해하기 쉬웠다.	5.13(1.32)	5.18(1.28)	.36
학습내용은 나에게 도움이 되었다.	5.07(1.31)	5.04(1.26)	-.19
학습활동은 학습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5.03(1.27)	5.12(1.25)	.69
학습활동을 수행하기에 수업시간은 적당하였다.	4.90(1.26)	5.01(1.29)	.78
학습활동에 즐겁게 참여하였다.	5.07(1.32)	5.01(1.46)	-.38
교수도구의 사용이 적절하였다.	5.34(1.41)	5.50(1.39)	1.04
수업에 대해 만족한다.	5.39(1.35)	5.46(1.40)	.51
계	5.12(1.31)	5.18(1.33)	.50

V.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부모와의 갈등이 심화될 수 있는 청소년기에 부모와의 의사소통에서 갈등해결방법의 적용과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제7차 교육과정의 중학교 기술·가정 1학년에 해당하는 '가족구성원간의 의사소통' 단원에서 대부분의 교과서에 나오는 적극적 경청과 나전달법만을 이용한 비교집단과 두 방법 외에 갈등해결방법을 적용한 실험집단을 위한 교수·학습 과정안을 개발하고 부모자녀관계에 미치는 효과의 차이를 알아보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 연구는 ADDIE 수업설계 모형에 따라 2009년 3월부터 7월까지 수행되었으며 연구 대상은 광주광역시 소재의 W중학교 1학년 총 9학급 366명으로 실험집단 203명, 비교집단 163명으로 하여 각각 수업에 적용하였다. 두 집단에게 3차시에 걸친 교수·학습 과정안을 개발하고 부모자녀의사소통과 관계에 미치는 효과를 보기 위해 부모자녀간의 대화정도, 갈등정도, 기능적 의사소통정도, 관계만족에 대한 사전검사와 사후검사의 차이를 비교분석하고, 수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사후검사는 수업 적용이 끝난 직후 실시하지 않고, 총 3차시의 수업 동안 습득한 의사소통 방법을 가정에서 실천할 것을 강조하여 실제 가족관계에 적용하는 기간을 두고 수업 적용이 끝나고 약 3주 후에 실시하였다.

연구의 결과에서 나타난 몇 가지 논의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에서 총 3차시의 수업 적용 결과 두 집단 모두 부모와의 대화정도과 기능적 의사소통정도가 증가하여 수업의 효과가 나타났다. 부모와 자주 대화하는 정도도 수업전 보다 향상되었고, '나에게 고민거리가 생긴다면 어려워하지 않고 부/모와 의논할 수 있다',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않고 부/모님께 나의 생각을 말하는 편이다', '나는 부/모님께 나의 감정을 솔직히 말씀드릴 수 있다' 등의 말하기 관련 문항에서 두 집단이 공통으로 수업 후 그 정도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교수·학습 과정을 실제 부모자녀간의 대화 상황을 담은 동영상자료와 다양한 예로 학습활동으로 구성하고 교사의 시범과 대화실습으로 진행하여 학습자가 수업에 흥미를 느끼고 학습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또한 수업 중에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 사용에는 지속적인 노력과 연습이 필요하고 가정에서 반드시 적용할 것을 강조한 결과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에서 변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갈등상황에서 적극적 경청과 나전달법만을 이용한 의사소통은 청소년 자녀와 부모간의 대화정도, 기능적 의사소통정도의 증가에만 효과가 있었고, 갈등해결방법을 통한 의사소통은 부모자녀간의 갈등정도를 낮추고 대화정도, 기능적 의사소통정도, 관계만족의 정도를 높이는데 효과가 있

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기자녀와 부모와의 대화에서 적극적 경청과 나전달법만을 사용하여 갈등을 해결하는 데에는 대화상대 중 어느 한 쪽의 욕구가 충족 되지 않은 채 감정이 남아 있고 문제 해결이 되지 않을 수 있어 갈등을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에 갈등해결방법을 통한 의사소통은 부모자녀가 함께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대화를 촉진시키고, 부모는 권위적인 태도가 줄어들고 자녀는 갈등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어 갈등해결과 함께 부모자녀간의 유대감도 증가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청소년기 부모자녀간 대화정도과 기능적 의사소통 정도는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수업의 효과는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이는 유지연과 박정운(2005)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일상생활에서 아버지보다 어머니와 더 자주 기능적으로 대화를 나눠 정서적 유대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의사소통 수업과 적용으로 자신의 의사소통 방법 개선과 함께 자주 대화하지 않고 유대감이 낮은 아버지와의 대화증가와 기능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결과적으로 아버지와의 유대감 형성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 아버지와의 관계에 미치는 교육적 효과가 큰 것으로 사료된다.

넷째, 수업에 대한 평가 결과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에서 모두 전체적으로 수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고, 가족관계와 대화법을 다룬 학습내용과 실제 예로 다양하게 구성한 교수·학습 자료와 수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교수·학습 활동에서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가족구성원간의 의사소통' 단원 수업에서 교사 중심의 이론 수업에 치우치지 않고 학생 참여를 높이고 실제적인 대화법을 연습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 과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수업에서 가장 낮은 평가는 수업시간의 부족에서 나타났는데 현재 제7차 교육과정의 교과서 분량 중심으로 갈등해결방법을 추가하여 계획한 총 3차시의 의사소통 수업이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되며, 의사소통 수업이 학습자 중심으로 실제로 대화해보며 적용할 수 있는 실습으로 연결되려면 더 많은 시간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이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가장 큰 제한점은 연구대상의 수가 비교적 작고 한 학교의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여 일반화하여 해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부모자녀관계에서 의사소통은 상호간에 영향을 미치는 대화과정이나 이 연구에서는 수업시간을 통해 자녀 입장에서만 효과를 알아보았으므로 의사소통을 통한 갈등해결과 관계향상정도를 부모와 자녀 양쪽 입장에서 보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본 연구는 현재 제7차 교육과정을 적용한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후

속연구에서는 2007 개정 교육과정을 적용한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가족구성원간의 의사소통에 관한 교수·학습 과정을 개발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청소년기에 갈등이 있을 수 있는 부모 외에 형제자매관계, 또는 가족관계 외의 친구관계에서 의사소통을 통한 갈등해결의 효과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연구가 부모와의 갈등이 심화될 수 있는 청소년기에 부모자녀관계 향상을 돕고, 많은 교사들이 활용하여 청소년의 의사소통 교육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고경애(2007). 가족기능과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5(2), 301-320.

고영희(2007).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유형과 자아존중감 및 우울, 불안과의 관계.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공인숙, 이은주, 이주리(2005). 청소년의 부모와의 갈등 및 의사소통과 자아개념. **한국생활과학학회지**, 14(6), 925-936.

교육과학기술부(2008).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 2007-79호에 따른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Ⅲ); 수학, 과학, 기술·가정.

교육부(1997). 실과(기술·가정)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 1997-15호[별책 10].

교육부(1999). 교육부 고시 제1997-15호에 따른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Ⅲ); 수학, 과학, 기술·가정.

교육인적자원부(2007). 실과(기술·가정) 교육과정.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별책 10].

김명신(2003). 집중적·분산적으로 실시한 의사소통훈련 프로그램이 초등학교의 대인관계 향상에 미치는 영향: Thomas Gordon의 효율성 훈련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김성일(2001).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의사소통 유형과 자아정체감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4(1), 75-89.

김순옥(2007). 가족의 의사소통. **한국가족관계학회(편). 가족학**. (pp. 249-283). 서울: 도서출판 하우.

김현자(2007). P.E.T.와 현실요법을 접목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부모의 의사소통기술과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부모교육연구**, 4(2), 95-121.

김현주, 손은경, 신혜영(2000). **현장중심 부모교육**. 서울: 양서원.

남혜진(2007). 청소년의 성별, 가정 분위기, 의사소통 유형이

갈등해결방식 및 대인관계성향에 미치는 영향.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문성혜(2002). 부모-자녀 관계증진을 위한 학교기반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박부진(2008). 청소년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과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개체화에 미치는 영향. **여성가족생활연구**, 12, 129-148.

박현숙(2005). 청소년 자녀가 지각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심리적 부적응과의 관계.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박화윤, 마지순, 안라리, 천은영(2006). **부모 자녀관계 증진을 위한 부모교육**. 서울: 창지사.

백승미(2003).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과 아동의 다중지능과의 관계. 서울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백양희, 최외선(1997). 환경변인 및 내적 통제력,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청소년의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5(2), 33-48.

송정아, 윤명선(1997). 청소년 자녀와 부모 관계향상 프로그램 모형.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1), 71-82.

유지연, 박정운(2005). 청소년의 부모자녀관계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한국가정교육학회지**, 17(1), 69-84.

유은희(1996). 청소년 자녀의 부모교육 프로그램 모형 개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창간호**, 1-17.

이선정(2009). 대학생의 가족건강성 및 관련 변인이 부모됨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4(1), 243-266.

이영미(2005). 부모간 갈등과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에 따른 후기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5), 53-62.

이요나(2007).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유형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의 관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이은자(2005).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의사소통유형과 가정생활 및 학교 적응과의 관계. 대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이현지(2005). 어머니-자녀간 의사소통이 중·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6(1), 197-209.

정현숙, 유계숙, 전해정, 박주희(2002). **부모학**. 서울: 신정.

조구락, 김선연(2007).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서울: 학지사.

최규련(1998). 가족체계유형과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이 청소년 자녀의 심리적 복지수준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

관계학회지, 3(1), 120-142.

최유진(2007).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자
아존중감, 친구간 갈등해결전략이 교우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한국가족관계학회(1998). **가족생활교육 이론 및 프로그램**.
서울: 도서출판 하우.

Gordon, T.(2002). **부모역할훈련**(*Parent Effectiveness
Training*). 이훈구(역). 서울: 양철북. (1975년 원저
발간)

접 수 일 : 2010년 4월 30일

심사시작일 : 2010년 5월 7일

게재확정일 : 2010년 7월 26일